

우리 자녀는 어떤 진로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학업부터 교우 관계까지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학생 시기, 우리 자녀는 어떤
진로 고민을 할까요? 우리 자녀의 고민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봅시다.

“저는 무엇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다문화 자녀는 정체성 혼란, 언어적 어려움, 낮은 학업 성취능력 등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낮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지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를 인식하고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고 성격과 가치관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 ☐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함께
대화를 나눠보세요.
- ☐ 자녀의 적성과 흥미,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 이중 언어가 국제화 시대에 강점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세요.

“공부를 꼭 해야 하나요?”

다문화 자녀 중에서도 특히 중도입국한 경우에는 낮은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은 교육과 진로, 가족 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학업 성취능력이 낮거나 수업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무조건 공부를 하라고 하기보다는 공부를 통해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 자녀와 함께 공부 목표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주세요.
- ☐ 단어장 만들기, 암기 방법 등을 알려 주고 함께 연습해보세요.
- ☐ 기관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해 한국어 배움의 재미를
알려주세요.

“저는 꿈이 없어요!”

다문화 자녀는 어려서부터 지속된 정서적 혼란과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 혹은
진학에 대해서도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 제도, 사회적 관습, 또래 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학교생활을 할 경우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자녀가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꿈이 없어 걱정’이라는 자녀의 말은 진로를 고민하는 모습의 시작이므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도와주세요.
- ☐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 ☐ 직업 관련 자료, 멘토 등 진로 대화를 통해 꿈을 꿀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진로한걸음더

우리 동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진로 고민을 함께 이야기해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각종 진로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찾아가 자녀의
진로 고민에 대해 도움을 받아봅시다.

다문화교육포털(edu4mc.or.kr) >
정책 안내 > 유관기관 >
우리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검색



※ 모바일 페이지 왼쪽 윗부분의 언어 선택을 클릭해 언어를 변경 후
이용해주세요.

참고: 교육부,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지도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자녀의 진로 고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갑시다

어느 문화권이든 중학생 자녀들은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외모와 언어,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생 시기 자녀의 진로 고민을 현명하게 해결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 자녀에게 어떤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자녀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학교와 교육청,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자녀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부모

중국인 어머니를 따라 중학교 시기에 한국에 온 이○○군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군의 초기 정착을 도왔고, 지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에서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중국어 공부를 도우며 자부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군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9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자녀

**“혼자 공부하기 어렵고
진로·진학 준비도
막막해요”**

**“자녀와
함께 공부하며
공부와 진학 챙겨요”**



부모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한국에 온 베트남 출신 장○○씨는 자녀가 태어난 뒤 자녀 교육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보력이 부족해서 자녀의 공부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까봐 불안이 컸습니다. 지역의 다문화학부모 공동체에서 한글을 배우고 검정고시도 공부하면서 장씨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학교 공부를 하면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아들은 중학생이 된 지금 수학이 가장 쉽다고 말할 만큼 공부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참고: 대전 다문화가족학교(www.hanmaum-ec.org)



자녀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의욕이 없어요”**

**“이중언어대회를
준비하면서 자녀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부모

국적이 없는 상태로 열두 살에 입국한 중도입국 자녀인 ○○○양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두려움도 많았지만 같은 반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빠르게 적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 관심을 갖고 참가를 준비하면서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취의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검정고시도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참고: 중도일보, 2021. 11. 28. <아프지만 따뜻했던 나의 한국 생활 적응기>

진로 돌보기

우리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 이렇게 준비해요

한국의 고등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 자녀는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미리 알아봅시다.

※ 모바일 페이지 왼쪽 윗부분의 메뉴에서 랭귀지(language)를 클릭해 언어를 변경 후 이용해 주세요.

경기도문화교육지원센터(more.goe.go.kr)
> 학부모마당 > 중학교 > 고등학교 진학

